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업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신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업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신 40돐 기념보고회가 7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박범기동지와 리철만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농업과학원 일군들과 과학자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계명상 농업과학원 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64(1975)년 1월 8일 당과 국가의 전반사정을 들으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업과학원에 거룩한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기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과학자들이 새롭고 창조적인 농기계를 하나하나 보이주시고 여러 가지 농기계를 많이 만들어 우리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하루빨리 해방시켜야 한다고 하시었다.

농업과학자들이 새로 육종한 논벼, 강냉이, 콩, 수수를 비롯한 알곡작물종들의 육종도식과 연구결과들을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우월함을 하나하나 지적해주시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과학 연구성과들을 보이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농업과학자들이 연구사업을 많이 하였다고 과분한 칭찬을 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으며 앞으로의 사업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 주시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의 농업과학원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나라의 농업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린 전환적기회로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농업과학원이 나라의 믿음직한 과학연구기지로

훌륭히 전변된대 대하여 언급하고 그는 지난 40년간 농업과학 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는 전적으로 과학원이 나아가고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연구결과들을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우월함을 하나하나 지적해주시었다.

보고자는 나라의 농업과학 발전을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평등업적을 경건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헤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업과학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높은 자주성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농업생산을 끌어올리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최첨단과학기술의 열풍을 세차

게 일으켜 정보기술을 농업생산 실현에 도입하며 물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신진과학기술식 보급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나라의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과학기술교류사업을 힘있게 벌려 앞선 연구방법과 선진기술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며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자질향상사업에서 원바람을 일으키게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과학자들,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헤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기회를 높이 들고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올해 총공격전의 승리를 위한 근본방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혁명과 건설의 때 시기, 때 단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목표와 방향, 전략과 전술, 구체적과업과 방도를 밝히줍니다.》

우리 당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시대의 요구, 인민의 지향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 실현으로 찬란군민을 현명하게 이끌었다. 우리 당이 밝혀준 투쟁과업과 방도들은 그 하나하나가 조성된 환경과 주제적력량, 먼 앞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언제나 훌륭한 결실을 안아왔다.

올헤도 우리 당은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나갈수 있는 방도들을 뚜렷이 명시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것은 올해 총공격전의 승리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혁명가가 지나야 할 사상정신적특질을 전면적으로 담고있는 승중한 정신이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창조된 백두의 혁명정신은 굳건히 계승되어왔기에 우리 혁명의 백색의 력사와 전통이 뜻이 이어지고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의 불패의 보루로 다져지게 되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서 영원히 안고 살아야 할 정신이며 온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않아야 할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보이다.

최근년간 우리 군대를 굴복시키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는 원수들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백두산맥을 안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

과 의지를 흔들어놓을수 없었다. 지난해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불리한 조건에서도 생산적적양을 일으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을수 있었던것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철저히 구현해왔기때문이다.

올헤의 투쟁과업은 방대하고 시련도 있지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싸워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 나가는 애국헌신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올해 총공격전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자기의것에 대한 편협과 림장은 애국의 출발점으로 된다. 자기의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다.

오늘 천리마타일공장은 주체가 철저히 선 공장, 애국공장으로 자랑될것이다. 공장의 그 이터를 가보아도 우리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우리의것을 세계에 빛내려는 격전의 승리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혁명가가 지나야 할 사상정신적특질을 전면적으로 담고있는 승중한 정신이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창조된 백두의 혁명정신은 굳건히 계승되어왔기에 우리 혁명의 백색의 력사와 전통이 뜻이 이어지고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의 불패의 보루로 다져지게 되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서 영원히 안고 살아야 할 정신이며 온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않아야 할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보이다.

최근년간 우리 군대를 굴복시키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는 원수들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백두산맥을 안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

과 의지를 흔들어놓을수 없었다. 지난해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불리한 조건에서도 생산적적양을 일으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을수 있었던것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철저히 구현해왔기때문이다.

올헤의 투쟁과업은 방대하고 시련도 있지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싸워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 나가는 애국헌신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올해 총공격전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자기의것에 대한 편협과 림장은 애국의 출발점으로 된다. 자기의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다.

오늘 천리마타일공장은 주체가 철저히 선 공장, 애국공장으로 자랑될것이다. 공장의 그 이터를 가보아도 우리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우리의것을 세계에 빛내려는 격전의 승리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혁명가가 지나야 할 사상정신적특질을 전면적으로 담고있는 승중한 정신이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창조된 백두의 혁명정신은 굳건히 계승되어왔기에 우리 혁명의 백색의 력사와 전통이 뜻이 이어지고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의 불패의 보루로 다져지게 되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서 영원히 안고 살아야 할 정신이며 온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않아야 할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보이다.

최근년간 우리 군대를 굴복시키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는 원수들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백두산맥을 안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

조선의 승리를 다시 한번 굳게 확신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지지하여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배후민족독립운동이 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2015년

에 즈음하여 력사적인 신년사를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신년사에서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 세계자주화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배후민족독립운동은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조선혁명과 통일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바치신 공헌과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의 당과 인민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하며 최후 승리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력사적인 올해에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필생의 념원인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환을 가져올것이다.

우리는 조선의 승리를 다시 한번 굳게 확신한다.

통일된 조선 만세!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헤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청년전위들과 념맹원들의 결기모임이 7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해동지와 청년동맹, 념맹, 판계부부 일군들, 청년학생들, 념맹원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청년전위들의 결기모임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청년전위들의 결기모임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평양자동차기공공장 부국장 조광국, 사

로 빛내이기 위한 영웅적전군에 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백두의 대위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평등업적을 경건히 옹호고수하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호전에서 선봉투사가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며 가장 큰 영예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온갖 비사회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결렬히 투쟁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이 세계를 더디고 올라서겠다는 야심만만한 포부와 열정을 안고 두뇌전, 기술전을 완강하게 벌려 논부신 과학기술성과로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업부문의 청년들은 물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거이여 점령하며 축산기지와 양어기지, 온실과 버섯생산기지에서 생산을 정상화해나가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것이라고 말하였다.

수산, 경공업부문 청년들은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물고기대풍을 마련하며 생산성

을 높여 올헤 인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여러가지 질 좋은 소비품들과 학용품, 어린이식료품들이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생활부문과 중요공업부문의 청년들은 선한, 전례생산성을 높이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기간공업부문을 발전시켜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활하게 전진하도록 하는데서 돌격대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며 강성국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내세워지도록 하는데서 청년전위의 영예를 빛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이 위대성공양과 김정일에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국교양, 도덕교양에 힘을 넣어 청년들을 선군혁명투사로, 오늘의 총공격전의 기수, 전위투사로 준비시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동맹을 당중앙과 사상과 승검도, 방검검도 같이하는 선군혁명조직

을 높여 올헤 인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여러가지 질 좋은 소비품들과 학용품, 어린이식료품들이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생활부문과 중요공업부문의 청년들은 선한, 전례생산성을 높이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기간공업부문을 발전시켜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활하게 전진하도록 하는데서 돌격대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며 강성국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내세워지도록 하는데서 청년전위의 영예를 빛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이 위대성공양과 김정일에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국교양, 도덕교양에 힘을 넣어 청년들을 선군혁명투사로, 오늘의 총공격전의 기수, 전위투사로 준비시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동맹을 당중앙과 사상과 승검도, 방검검도 같이하는 선군혁명조직

을 높여 올헤 인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여러가지 질 좋은 소비품들과 학용품, 어린이식료품들이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생활부문과 중요공업부문의 청년들은 선한, 전례생산성을 높이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기간공업부문을 발전시켜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활하게 전진하도록 하는데서 돌격대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며 강성국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내세워지도록 하는데서 청년전위의 영예를 빛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이 위대성공양과 김정일에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국교양, 도덕교양에 힘을 넣어 청년들을 선군혁명투사로, 오늘의 총공격전의 기수, 전위투사로 준비시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동맹을 당중앙과 사상과 승검도, 방검검도 같이하는 선군혁명조직

을 높여 올헤 인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여러가지 질 좋은 소비품들과 학용품, 어린이식료품들이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생활부문과 중요공업부문의 청년들은 선한, 전례생산성을 높이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기간공업부문을 발전시켜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활하게 전진하도록 하는데서 돌격대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며 강성국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내세워지도록 하는데서 청년전위의 영예를 빛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이 위대성공양과 김정일에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국교양, 도덕교양에 힘을 넣어 청년들을 선군혁명투사로, 오늘의 총공격전의 기수, 전위투사로 준비시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동맹을 당중앙과 사상과 승검도, 방검검도 같이하는 선군혁명조직

을 높여 올헤 인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여러가지 질 좋은 소비품들과 학용품, 어린이식료품들이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생활부문과 중요공업부문의 청년들은 선한, 전례생산성을 높이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기간공업부문을 발전시켜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활하게 전진하도록 하는데서 돌격대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며 강성국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내세워지도록 하는데서 청년전위의 영예를 빛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이 위대성공양과 김정일에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국교양, 도덕교양에 힘을 넣어 청년들을 선군혁명투사로, 오늘의 총공격전의 기수, 전위투사로 준비시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동맹을 당중앙과 사상과 승검도, 방검검도 같이하는 선군혁명조직



청년전위들의 결기모임



청년전위들의 결기모임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자는 우리의 호소에 똑바른 립장을 밝히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담화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가는 절세위인의 승중한 애국, 애족, 애민의 력사적인 호소가 백두에서 한나에 이르는 이 나라 강토를 뜨겁게 작동시키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북남관계력을 새롭게 써나가시려는 단호한 결심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힘찬 보복을 내졌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실천적조치들을 실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새해벽두부터 상사통지 못한 잡소리와 대결행위를 드러내 보여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지금 남조선정계에서는 공공연히 《북신년사의 진정성》에 대하여 운운하고 우리의 력사적인 호소를 《한미공조분노론 대남개탄기》, 《국제적압박에서 벗어 나기 위한 대외공세》로 매도하는 망언들이 연이어 울려나오고있다.

지어 미국의 천만부당함 《초강대북추

가제제》에 《적절한 대응》이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인간스펙기들을 내놓아 전연일대에서 반공화국베라를 살포하는 대결망동까지 다시 연출하고있다.

우리를 자극하는 남조선군부의 대결폭언은 더욱 잦아지고있으며 관계개선분위기에 상반없이 침략적인 합동전쟁연습을 강행하려는 움직임까지 드러내놓아 온 겨레를 참을수 없는 분노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조선된 정세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임에 따라 남조선당국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립장을 똑바로 밝히것을 촉구한다.

1.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으로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뽀라살포와 같은 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릴 작정인가.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어린 립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새해벽두부터 대화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대결망

동을 우리의 면전에서 빼앗아 버리고있다.

1월 5일에는 악질《달복》단체인 《대북공진단》소속 인간스펙기들을 전선중동부 군사분계선일대에 내놓아 수직망의 반공화국베라를 우리측 지역에 살포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오는 20일경에는 미국상선의 총동을 받은 악질불망종들이 미국땅에서까지 정의 북부정벌을 받은 불순반동레오선동영화를 수록한 DVD와 USB기억매체를 끌어들이 우리측 지역에 살포하겠다고 뽀쳐 대고있다.

문제로 되는것은 남조선당국이 아직도 《표현의 자유》와 《세계사특성》, 《법적근거의 부재》 등을 구실로 국제판정에서 감행되는 대결망동 하나 저지시키지 않겠다고 떠들어대고있는것이다.

이런 무능무력한 상대, 이런 당국과 열백만 마추앉아야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리치이다.

남조선당국은 대화나, 대결인가 하는 망자태일의 길에서 이에 대한 독특한 립

장을 밝혀야 한다.

2.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긴장격화의 길로 계속 나갈 작정인가.

우리는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체는 최근이 동족을 반대하여 그칠새없이 벌리는 대규모적인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무모한 전쟁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행동을 그만둘데 대하여 제안하였다.

그러나 새해초부터 남조선군부는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을 증진할데 대한 우리의 평화적호적인 호소에 호응할 대신 《남조선-미국연합체제》가 존재하는 한 《훈련은 계속될것》이고 그레야 전투력이 유지된다며 북침핵전쟁연습의 지속적인 강행을 로골적으로 공언해나갔다.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의장은 새해벽두부터 전투기를 타고 침에한 서남해상 열점수역 상공을 돌리며 《북이 도발하면 주저없이 처절하게 응징하라.》고 켈쳐했다.

우리는 이미 나라의 자주성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행위에 대

해서도 철저히 대응할것이며 정벌할것이라는 단호한 립장을 밝힌바 있다.

남조선당국은 나라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긴장격화의 길로 계속 나갈 작정인가 하는 립장을 똑바로 밝혀야 한다.

3. 진정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제도통일》, 《체제대결》에 매달릴 작정인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적도 없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자.

그런데 아직도 남조선정계에서는 그것도 당국자들속에서 온 겨레의 진정한 통일 대화와 접촉을 현 집권자의 《소통이론》, 《대북통이론》실현에 복종시키려고 작정하고있다.

지어 《2015년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 유민주주의통일을 이룩하자.》는 해피한 망언들이 울려나오고 통일부장관이라는 자가 《한국주도의 통일》을 이룩하자는 궤

변을 공개석상에서 꺼리낌없이 켈쳐대고 있는 정도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도 2015년에는 어떻게 하나 《북의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서슴없이 떠들어대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대단합, 대단결문제가 일정에 오른 이 시국 《제도통일》, 《체제대결》에 대한 똑바른 립장을 밝혀야 한다.

북남관계는 결코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개선되는것이 아니며 실천적조치가 없는 빈말공부로 좋게 발전하는것도 아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자는 적극적인 호소에 비껴있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똑바로 서겨야 한다.

북남대화의 진당도, 신뢰조성의 근원도 다름아닌 북남쌍방의 진정한 노력에 달려 있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앞에 자기의 책임적인 립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차후 움직임을 각성있게 지켜볼것이다.

주제104(2015)년 1월 7일

평 양

변을 공개석상에서 꺼리낌없이 켈쳐대고 있는 정도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도 2015년에는 어떻게 하나 《북의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서슴없이 떠들어대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대단합, 대단결문제가 일정에 오른 이 시국 《제도통일》, 《체제대결》에 대한 똑바른 립장을 밝혀야 한다.

북남관계는 결코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개선되는것이 아니며 실천적조치가 없는 빈말공부로 좋게 발전하는것도 아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자는 적극적인 호소에 비껴있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똑바로 서겨야 한다.

북남대화의 진당도, 신뢰조성의 근원도 다름아닌 북남쌍방의 진정한 노력에 달려 있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앞에 자기의 책임적인 립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차후 움직임을 각성있게 지켜볼것이다.

주제104(2015)년 1월 7일

평 양

변을 공개석상에서 꺼리낌없이 켈쳐대고 있는 정도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도 2015년에는 어떻게 하나 《북의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서슴없이 떠들어대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대단합, 대단결문제가 일정에 오른 이 시국 《제도통일》, 《체제대결》에 대한 똑바른 립장을 밝혀야 한다.

북남관계는 결코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개선되는것이 아니며 실천적조치가 없는 빈말공부로 좋게 발전하는것도 아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자는 적극적인 호소에 비껴있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똑바로 서겨야 한다.

북남대화의 진당도, 신뢰조성의 근원도 다름아닌 북남쌍방의 진정한 노력에 달려 있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앞에 자기의 책임적인 립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차후 움직임을 각성있게 지켜볼것이다.

주제104(2015)년 1월 7일

평 양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릴수록 자멸의 구렁텅이에 더 깊숙이 빠지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

새해의 첫 러명이 떠오르는 뜻깊은 시각 조국통일과 조선반도평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철의 의지가 담긴 위대한 호소가 온 민족은 물론 세계의 마음들을 뜨겁게 달구고있다.

더구나 장장 70년세월 우리 겨레에게 국토방위와 민족분열의 비극적아픔을 들었던 미국에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책동을 그만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라고 촉구한 우리의 정당당한 요구는 시대의 퇴성이 되어 천하를 뒤흔들고있다.

그러나 오바마를 위시한 미국의 집권세력은 이 시대적요구에 호응해나설 대신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새해벽두부터 우리 공화국의 주요기관과 단체들, 개인물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고강도추가제제》와 그것을 내용으로 하여 발표한 《대통령행정명령》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어 미당국자들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선언한 역사적인 조치에 대하여서도 《과도적인 비유지불로 대응에서는 안된다》며 벌써부터 바르지 못한 소리를 내지르고 《관계개선은 비핵화에 대한 북의 진정성있는 태도변화가 전제되어

야 한다.》고 심술궂은 속내까지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드바쁜 년말년시에 극심한 인종차별과 같은 온갖 사회악으로 아비규환이 된 미국내의 혼잡한 정사는 안중에도 없이 하와이섬에서 《포도물의》나 일으키며 부외의 비난속에 건들거리던 오바마가 내각각료에게 추가적인 《제제》를 가하라고 《대통령행정명령》을 선포한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벗어난 극히 이례적인 처사라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더구나 《쓰니 픽처스》 영화제작보급사가 당한 전대미문의 해킹사건이 미국집안 내부소행이거나 다른 나라들과 관계되어 있다는 과학적인 조사결과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터무니없는 《복소형설》을 우겨대며 당치않은 대조선강경책을 공표해댄것은 무심히 스쳐지날 일이 아니다.

오바마로 말하면 테로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불온반동영화를 제작상영하려던 《쓰니 픽처스》가 정의의 징벌을 받기 바쁘게 벌어진 사태를 무작정 우회와 관계시키면서 《비례성대응》과 《강경대처》와 같은 폭언을 늘어놓으며 대조선적대행위에 광분해은 장본인이다.

세계가 멀리 전진하고 시대도 크게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시대

착오적인 적대행위에 매달려 분별없이 놀아내고있는것이다.

리성을 잃은 미국의 범죄적책동은 극단의 지경에 이르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정초부터 조미편파를 최악의 대결구면으로 몰아가고있는 오바마 미행정부에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통고한다.

1. 미국은 천만부당하기 그지없는 모든 대조선 《제제》 조치부터 전면적으로 철폐하여야 한다.

우리의 기립장은 지금까지 미국이 고안해낸 모든 대조선 《제제》 조치가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체질화된 적대감과 골수에 밴 거부감, 그에 따른 적대시정책에 그 바탕을 두고있기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당치않은 구실과 조건을 전제로 꾸며낸 《제제》이기때문이다.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인 위성발사가 《제제》의 조건으로 되고 당당한 자위적인 미사일발사가 《제제》구실로 된다면 죄없는 미국이아말로 스스로 제제를 받아야 할 첫째대상일것이다.

핵강공격의 배후가 우리라는 독특한 근거도 없이 《제제》소통을 벌인다면 그보다 더한 날강도적인 도발행위는 이 세상에 없을것이다.

확실한 근거도 없는 사건을 거둬서 《대통령행정명령》을 발표하는 회비극을 연출할수록 미국은 더 큰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정정당당하다면 지금이라도 공동조사요구에 응하라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천만부당하기 그지없는 대조선 《제제》소통에 매달릴수록 우리가 약화되는것이 아니라 미국이 더욱더 헤어나갈수 없는 자멸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정반대의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2. 미국은 이 기회에 조선반도에서 전행위험을 조성하는 무모한 모든 적대행위를 무조건 중지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상대에 대한 적대행위는 언제나 강경대응을 불러오기때문이다.

특히 위협과 공갈을 동반한 물리적대행위는 더욱 그러하다.

《년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외피를 쓰고 일련일달 무어든 하루도 번짐이 없이 날조선과 그 주변지역에서 벌리는 《기 리졸트》,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 《맥스 썬더》, 《앵롱》과 같은 형형색색의 전쟁연습들은 그 어느것이나 날강도적인 물리적침략행위이다.

미국은 더 늦기 전에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가 단행할 초강경대응전의 대상은 《쓰니 픽처스》와 같은 일개 회사가 아니다. 미국이 매달리는 《테로시공격》은 더욱 아니다.

미국은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크고작은 침략전쟁에 가담하면서 아직까지 제땅에서 단 한번의 총포세례도 받아보지 못한 나라이다.

당하지 않겠으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스스로 철폐하여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쟁의 위험속에서 날과 달을 보내고 대를 이어오고있다.

미국에서까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완폐한 정책》, 《어리석음의 극치》, 《화만 자초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있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하루빨리 철폐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로 될것이다.

대세를 무시하고 상대를 오판하며 자기를 파신하는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상대를 모르고 자기의 처지도 모르면 기필코 망하게 되어있다.

우리는 미국의 정책전환을 주시해볼것이다.

3. 미국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중유의 초강경대응전에 진입한 상대라는것을 순간도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미국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대조선적대행위에 맞서 초강경대응전을 선언한 상태에 있다.

미국은 더 늦기 전에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가 단행할 초강경대응전의 대상은 《쓰니 픽처스》와 같은 일개 회사가 아니다. 미국이 매달리는 《테로시공격》은 더욱 아니다.

미국은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크고작은 침략전쟁에 가담하면서 아직까지 제땅에서 단 한번의 총포세례도 받아보지 못한 나라이다.

당하지 않겠으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스스로 철폐하여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쟁의 위험속에서 날과 달을 보내고 대를 이어오고있다.

미국에서까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완폐한 정책》, 《어리석음의 극치》, 《화만 자초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있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하루빨리 철폐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로 될것이다.

대세를 무시하고 상대를 오판하며 자기를 파신하는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상대를 모르고 자기의 처지도 모르면 기필코 망하게 되어있다.

우리는 미국의 정책전환을 주시해볼것이다.

우리가 단행할 초강경대응전의 대상은 《쓰니 픽처스》와 같은 일개 회사가 아니다. 미국이 매달리는 《테로시공격》은 더욱 아니다.

우리가 단행할 초강경대응전의 대상은 《쓰니 픽처스》와 같은 일개 회사가 아니다. 미국이 매달리는 《테로시공격》은 더욱 아니다.

우리가 단행할 초강경대응전의 대상은 《쓰니 픽처스》와 같은 일개 회사가 아니다. 미국이 매달리는 《테로시공격》은 더욱 아니다.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화답한다

황해남도 물길공사장에 서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황해남도물길공사 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에서

지난 1월 1일 10만산대발파의 장엄한 우리소리가 황해남도물길공사장을 뒤흔들어 화답하게 울려 퍼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워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요

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0월의 대추진장을 빛나게 장식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언사는 일군들모두의 가슴을 격정으로 울려 하얏던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황해남도물길 1단계공사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할수 있었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일군들은 지난 시기의 공사진행과정을 하나하나 분석해보았다. 그럴수록 자책감이 커졌다. 이것이 없소, 자책감이 없소 하는 식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줄것만 바랐지 황공래의 새 역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투쟁하지 못한것이었다. 결국 더 거들수 없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찾은 교훈이 클수록 결심도 새로웠다.

《모두나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펼쳐나서!》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10월의 대추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것이 우리총동무들 비롯한 일군들모두의 한결같은 신념이고 맹세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자자구구 새겨들고 공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모험을 찾아나갔다.

이 과정에 세가지 문제점을 찾아내고 실천해나갔다.

우선 나라의 전력사정이 긴장한 조건에서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기 위한 작전을 빈틈없이 세우고 이 사업을 강하게 내밀었다. 모든 리단들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기 위한 사업과 중산점약투쟁을 강화하며 대추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이도록 하였다. 특히 그 어떤 조건에서도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기 위하여 모든 리단들에서 연유를 리용하는 압축기, 양수기, 발동기들을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사업과 필요한 연유를 대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모든 리단들에서 전기와 자재,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를 높일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기 위한 준비방향을 일소 키도록 작정하였다.

애로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일군들모두가 결사관철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여내며 공사를 벌이던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든 리단들에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모든 리단들에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하게 되었다.

중앙지휘부와 모든 리단들의

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강하게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증시한 문제가 사회주의경쟁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고 대추의 정진력을 최대로 폭발시키면서 앞선 단위들의 모범을 적극 일반화해나가도록 한것이다.

우선 보여주기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각 리단의 일군들이 합리적인 물길굴확장과 천공배치, 발파방향, 콘크리트복공공사 방법을 받아들이는데서 좋은 경험들을 분반하도록 하였다. 또한 리단별, 대대별시회주의경쟁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모든 총공격전에서의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적극 밀어붙였다. 이러한 모든 작전과 실천은 대중의 열의를 힘있게 불어일으켰으며 그것은 그대로 공사실적으로 이어졌다.

맹새와 일꾼이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일어난다.

일군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조국애, 일꾼애, 대추애, 조진동맹창건 열풍을 더는 뜻없는 울에 황해남도물길공사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게 날아가지 않도록 하고 같이 닳도록 뛰어나며 계속 힘찬 전투를 벌이고있다.

본사기자 박 철

남포시 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워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요

할 토량은 2만여m나 되는 방대한 공사였었다. 이때 려단장이 절절하게 말하였다.

《이 공사가 어렵고 힘들다고 물리선다면 그것은 물길건설자의 희망을 저버리는것이나 같습니다.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릴 신념과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충할 각오를 가지고 밀쳐나서면 못해낼 일이란 없습디다.》

그러면서 그는 황해남도물길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일군들이 대오의 기수가 되고 선위투사가 되자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심장을 울리는 그의 호소에 모든 일군들이 호응해나갔다.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리자. 일군들이 이런 불같은 각오로 일떠세우기 모든 돌격대원들의 사상정신상태가 고조되었다. 모두가 당이 맡겨준 공사와 제를 무조건 제기에 맡겨줄 마음으로 산악같이 일떠세웠다. 온 건설장이 불드나기만 같아 끓어올랐다. 붉은기들이 펄펄 휘날리는 전투장마다에서는 화신시적지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사회주의경쟁열풍이 불어오르는 속이 분초를 다투며 혁신이 창세되었다.

1월의 강추위로 이들의 의지를 시험해보려는듯 기습을 부렸다. 하지만 백두의 넘파 공사장은 순식간에 진창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순간도 전투를 멈추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한몸이 그대로 정대가 되고 함파가 되어 연망을 가졌으며 다른쪽에서는 마

한결같은 신념이고 맹세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자자구구 새겨들고 공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모험을 찾아나갔다.

이 과정에 세가지 문제점을 찾아내고 실천해나갔다.

우선 나라의 전력사정이 긴장한 조건에서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기 위한 작전을 빈틈없이 세우고 이 사업을 강하게 내밀었다. 모든 리단들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기 위한 사업과 중산점약투쟁을 강화하며 대추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이도록 하였다. 특히 그 어떤 조건에서도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기 위하여 모든 리단들에서 연유를 리용하는 압축기, 양수기, 발동기들을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사업과 필요한 연유를 대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모든 리단들에서 전기와 자재,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를 높일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기 위한 준비방향을 일소 키도록 작정하였다.

애로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일군들모두가 결사관철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여내며 공사를 벌이던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든 리단들에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모든 리단들에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하게 되었다.

중앙지휘부와 모든 리단들의

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강하게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증시한 문제가 사회주의경쟁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고 대추의 정진력을 최대로 폭발시키면서 앞선 단위들의 모범을 적극 일반화해나가도록 한것이다.

우선 보여주기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각 리단의 일군들이 합리적인 물길굴확장과 천공배치, 발파방향, 콘크리트복공공사 방법을 받아들이는데서 좋은 경험들을 분반하도록 하였다. 또한 리단별, 대대별시회주의경쟁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모든 총공격전에서의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적극 밀어붙였다. 이러한 모든 작전과 실천은 대중의 열의를 힘있게 불어일으켰으며 그것은 그대로 공사실적으로 이어졌다.

맹새와 일꾼이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일어난다.

일군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조국애, 일꾼애, 대추애, 조진동맹창건 열풍을 더는 뜻없는 울에 황해남도물길공사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게 날아가지 않도록 하고 같이 닳도록 뛰어나며 계속 힘찬 전투를 벌이고있다.

본사기자 박 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워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워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워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워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워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워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워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워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워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요

함경남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워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요

기적을 안아온 위훈의 3일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워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요

자강도려단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워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요

돌격대원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워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요

나를 따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워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요

앞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워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워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워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워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워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워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당이 번개를 치면 한결같이 펼쳐나 총진군의 뒤흔개로 실천도 하나가 될 때 혁신이 창조된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첫 전투 3일동안에 수백m의 물길굴확장과 콘크리트복공공사를 진행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여 흙물길을 건설하였다. 이 성과는 맹세도 실천도 하나가 되는 힘찬 전투를 벌인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의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

대단함, 대단결은 통일위업실현의 절박한 요구

은 민족을 자주통일의 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으로 부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해내의 온 겨레에게 자주통일위업의 승리에 대한 무한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 주셨다.

올해는 자주통일의 대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날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호소는 민족분열의 비극의 역사를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으려는 절세의 애국자의 단호한 의지, 북남관계의 대전환, 대변혁으로 뜻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위업의 성취를 위한 열거하기시려는 그의 비범한 용단의 발현이다.

세기를 이어 70년이나 지속되고있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려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사적과제로 나서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운동에 한걸음이 떨쳐나서야 한다.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이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면 온 민족이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대단함,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함,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라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함,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손조롭게 풀어나가라 한다.》

민족의 대단함,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며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

나의 민족으로서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북과 남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으며 화목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외세국 강요한 분열의 비극으로 하여 우리 민족이 비록 둘로 갈라져있지만 북과 남이 같은 민족으로서 다시 화합하는것은 역사적의 어길수 없는 법칙이고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면 그것이 곧 조국통일이다.

민족의 대단함, 대단결은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내외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통일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조국통일은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책동을 물리치는 치열한 투쟁을 동반한다. 조국통일위업의 성패는 전적으로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얼마나 튼튼히 마련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제 조선민족이며 주체의 위력은 다음이닌 전민족의 대단결에 있다.

70년이나 지속되고있는 분신과 대결의 역사를 중지부를 찍고 자주통일의 전향적전환을 열어나가자면 온 민족이 애국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 통일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

전제 조선민족이 통일애국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 힘차게 투쟁해나갈 때 조국통일위업은 력사의 그 어떤 도전과 풍파도 이겨내며 승승장구하게 될것이다.

오늘 민족의 대단함, 대단결을 이룩하는 문제는 민족의 운명, 통일위업의 전도와 판권되는 생활적문제로서 나고있다.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지 않는 반통일세력들은 북남사이에서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이 땅에서 새 전쟁의 불길은 타치기 위하여 퍼뜨려 되어 날뛰어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

이 민족의 출로라면 분신과 대결은 곧 파국과 재앙, 전쟁을 몰아오는 화근이라 하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제 조선민족이 대단함, 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단결과 공조를 강화하는데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분열리간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통일위업을 더욱 힘차게 추동해나갈 수 있는 결정적담보이다.

민족의 대단함,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온 겨레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는 우리 민족끼리리념이다.

민족의 단결은 민족성원들의 기계적인 집합이나 산수학적 모임이 아니다. 그것은 혈연의 정으로 뭉친 운명공동체이고 자주운동명개척을 위해 애국의 뜻과 리념으로 힘을 합친 통일의 주체이다.

민족의 단결은 반드시 온 겨레를 통일 애국의 길로 힘있게 불러들이는 승고한 리념밑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은 겨레의 가슴마다에 뜨거운 애국의 열정을 심어주고 북과 남은 통일의 길에서 힘을 합쳐나가는 운명공동체라는 각각을 북돋아주어 온 민족을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는 위대한 단합의 리념이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갈 때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공동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의 전민족과 생활력은 북남관계개신과 조국통일운동의 사명적과업으로 빛나고 6.15공동선언의 거족적인 현실을 통하여 남김없이 파시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민족끼리리념을 깊이 간직하고 그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겨레의 신장에 우리민족끼리리념이 애국의 승리를 높이고 시대의 정신으로 맥박칠 때 민족의 단합은 날로 더욱 굳건해질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리

념, 정견과 주의주의의 차이를 뛰어넘어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뜻과 힘을 합쳐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북과 남, 해외의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이 단결과 공조를 강화하는데 안팎의 반통일세력을 강화하고 북남관계개신과 자주통일을 위한 길에서 보조를 같이하는것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담보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민족끼리리념을 근본정신으로 하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하는데 민족의 대단함, 대단결을 실현하고 더욱 강화할수 있는 비결이 있다.

우리민족끼리리념에 추축되고 민족의 대단결을 가르막는 반통일책동에 결성적인 반격을 가해야 한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을 부정하며 동족대결을 추구한다면 북남관계의 파국밖에 돌아올것이 없다. 이것은 조국통일운동의 력사와 목적 많은 지난해의 현실이 뚜렷이 보여준 심각한 교훈이다.

민족단합의 대세에 역행하여 침략적인외세와 공조하는것은 민족앞에 쓸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반역행위이다. 우리민족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반대하며 동족대결을 추구하는것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올해의 시대는 온 민족을 대단함, 대단결로 부르짖고있다. 민족의 괴와 애국의 넋을 지닌 조선사람이라면 대단함, 대단결의 호소에 말로써가 아니라 애국적인 실천으로 화답해야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민족의 대단함, 대단결을 이룩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를 열어가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은 정 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지지하여 가나, 나이에 따라정계인사들이 1일 단합을 발표하였다.

가나민족주의대회 부총서 조지 라우씨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신 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5년 신년사를 맞으면서 하시신 신년사를 조선인민이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명중한 길을 밝혀주셨으며 평화와 화해와 정의의 길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진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셨다.

우리는 조국해방 일흔년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를 열어나갈 때 대한 김정은동지의 열렬한 호소가 장기간의 민족분열의 아픔을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외면할수 없는 애국적호소이래고 인민의 대를 열어가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은 정 철

여러 나라에서 담화와 성명 발표

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조선의 불평등의 위력을 힘있게 떨친데 대하여 축하하시고 조국해방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대강사로 빛내이기 위한 파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경제건설, 문명건설,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을 이룩하리라고 굳게 확신하면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였다.

우리는 새해에 조선인민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여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함, 대단결을 이룩하여 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손조롭게 풀어나가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은 정 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를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사회주의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것이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의지이다.

신년사에 밝혀져있던것처럼 조선인민의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

조선의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 통일대강을 맺고 있다. 올해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손조롭게 풀어나가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은 정 철

최후승리의 길에 부합되는 강령적 단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지지하여 가나, 나이에 따라정계인사들이 1일 단합을 발표하였다.

가나민족주의대회 부총서 조지 라우씨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신 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5년 신년사를 맞으면서 하시신 신년사를 조선인민이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명중한 길을 밝혀주셨으며 평화와 화해와 정의의 길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진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셨다.

우리는 조국해방 일흔년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를 열어나갈 때 대한 김정은동지의 열렬한 호소가 장기간의 민족분열의 아픔을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외면할수 없는 애국적호소이래고 인민의 대를 열어가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은 정 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를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사회주의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것이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의지이다.

신년사에 밝혀져있던것처럼 조선인민의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

조선의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 통일대강을 맺고 있다. 올해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손조롭게 풀어나가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은 정 철

독립국가협동체나라 대통령들의 신년사

독립국가협동체나라 대통령들이 새해 2015년을 맞으며 신년사를 하셨다.

벨라루스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총포성이 그칠새없고 살상탄쟁이 심하였던 지난해 2014년은 진정한 평화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준 해였다고 말했다.

벨라루시는 모든 립접국가들과의 평화를 바라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새해에 독자적 민족적인 국가제도와 사회의 통일과 안정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창조적인 발기들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아르메니아대통령 세르주 사르기시안은 2014년은 세계적으로 극적인 사변이 많았던 해라고 하면서 국가가 이러한 사변

들로부터 자기 인민과 나라를 지키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정부가 대외적환경이 복잡하지만 나라와 매 가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투르키메니스탄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는 지난해 나라의 위력과 행보를 위한 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고 하면서 이 모든것은 정부가 제시한 《국가》의 원칙을 위하여라고 하였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는 지난해 나라의 위력과 행보를 위한 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고 하면서 이 모든것은 정부가 제시한 《국가》의 원칙을 위하여라고 하였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는 지난해 나라의 위력과 행보를 위한 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고 하면서 이 모든것은 정부가 제시한 《국가》의 원칙을 위하여라고 하였다.

민족공동의 리익에 부합되는 자주통일의 대강

통일애국운동의 선봉대가 되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희망한 새해 2015년에 즈음하여 하신 력사적인 신년사 말씀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원의 전제 일꾼들의 가슴가득히 뜨거워진 조국통일의 벽한 새시대가 펼쳐질 때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볼수록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운동의 한치의 드림도 없이 관철하여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기어 이 안겨주시려는 그이의 억척분반의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안겨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강령적인 파업들은 오랜 세월 분열의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 조선민족의 아픔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란 누구나 다 심장으로 받아들일고 반드시 관철해나가야 하는 민족사적과제, 자주통일을 위한 불멸의 지점이다.

백두의 천출위인이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이 땅에서 조국통일의 령은 반드시 밝아오게 될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다. 조선민족의 피를 지닌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뜻을 따라 조국해방 일흔년이 되는 올해를 조국통일위업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뜻깊은 해로 빛내이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피끓는 우리 청년들이 선봉대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의 맨 앞장이다. 우리는 전체 청년동맹 조직들과 청년들을 백두의 혁명

은 불행과 재난뿐이며 리익을 볼다는 열망과 의지로 가슴부풀게 하는 절세위인의 애국의 기백을 띤 신년사를 받아안고 우리 위원회원의 전제 념일꾼들은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가다 들고있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쓰시며 크나큰 로고를 바치고계시는가.

올해의 첫 려명이 떠오르는 뜻깊은 시각에 온 민족을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를 열어나가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 애민의 뜨거운 호소는 우리 청년들의 신심을 뜨겁게 달구고있다. 70년세월에 걸치는 민족분열의 가슴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에 대한 념원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을만큼 강렬하다.

이제 더이상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져 살수 없다. 분열이 지속될수록 우리 민족이 당하는 것

은 불행과 재난뿐이며 리익을 볼다는 열망과 의지로 가슴부풀게 하는 절세위인의 애국의 기백을 띤 신년사를 받아안고 우리 위원회원의 전제 념일꾼들은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가다 들고있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쓰시며 크나큰 로고를 바치고계시는가.

올해의 첫 려명이 떠오르는 뜻깊은 시각에 온 민족을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를 열어나가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 애민의 뜨거운 호소는 우리 청년들의 신심을 뜨겁게 달구고있다. 70년세월에 걸치는 민족분열의 가슴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에 대한 념원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을만큼 강렬하다.

이제 더이상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져 살수 없다. 분열이 지속될수록 우리 민족이 당하는 것

해될 일이 없다. 나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은 정 철

과업과 시위

에스파냐의 많은 도시들에서 최근 철도부문 근로자들의 파업이 벌어졌다. 파업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철도부문을 사영화하려

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 보르두의 리스본에서 최근 소방대원들이 처지개선을 요구하여 파업을 벌였다. 3일동안 진행된 파업에는 많은 소방대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불만을 표시하고 조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아메리카지역에서 전염병 피해

아메리카지역에서 치쿤구냐바이러스감염증이 급속히 전파되어 피해를 입고있다. 최근에 발표된 한국제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동안 아메리카지역에서 100만여명의 치쿤구냐바이러스감염자가 발생하였다. 미국에서는 1900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었다. 치쿤구냐바이러스는 일종의 출혈성열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서 극심한 발열과 고통, 구토, 메스꺼움, 고열 등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심한 경우 생명을 잃게 되며 아직까지 원인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하여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의 길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

력사는 언제나 자주의 방향으로 전진하기 마련이다. 지난해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세력들이 세계도처에서 자기의 세력권을 확대하기 위해 발파하였던 력사는 자주의 한길로 변함없이 전진하여왔다.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향과 열의가 뜨겁게 일어나는 가운데 국제무대에서는 발전도상국가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데 유리한 정치경제적요소가 조성되었다.

일국제에 의한 지배와 착취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는 여러 나라들의 적극적투쟁은 세계의 다국화추진되어 새로운 국제질서수립에서 일정한 전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난해 6월 적도기네에서는 제23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2014년에 대륙인민들의 고통과 지역의 락후성을 초래하는 모든 전쟁과 분쟁을 자체의 힘으로 종식시키고 2020년까지 대륙에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데 대해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동맹성원국들과 지역기구들의 역할과 조파성능을 정치적으로 높이고 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변혁하는 대륙을 건설하는것을 주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회의는 아프리카문제에 대해 의논하지 않고 대륙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추적인 계기로 되었다.

로씨야의 아스트라한에서 진행된 카스피해연안국가수뇌자회의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로씨야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메니스탄, 이란의 국가수반들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자연교해

피해지역들에서 구제조치가 계속 취해지고있다.

— 필리핀의 민다나오섬을 비롯한 동부와 중부의 여러 섬들에 최근 태풍이 몰아닥쳐 피해를 입었다.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지난해 12월 30일 현재 29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살림집들이 파괴되었다. 피해지역들에서 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 스리랑카에서 최근 큰물과 해가 계속 침범되고있다. 나라의 21개 지역에서 폭우에 의한 큰물로 지난해 12월 29일 현재 35명이 목숨을 잃고 110명여명의 주민들이 소거되었다. 또한 1만채의 살림집과 도둑, 하부구조들이 파괴되고 많은 목적이 류실되었고 한다. 현지에서 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의 길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

력사는 언제나 자주의 방향으로 전진하기 마련이다. 지난해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세력들이 세계도처에서 자기의 세력권을 확대하기 위해 발파하였던 력사는 자주의 한길로 변함없이 전진하여왔다.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향과 열의가 뜨겁게 일어나는 가운데 국제무대에서는 발전도상국가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데 유리한 정치경제적요소가 조성되었다.

일국제에 의한 지배와 착취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는 여러 나라들의 적극적투쟁은 세계의 다국화추진되어 새로운 국제질서수립에서 일정한 전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난해 6월 적도기네에서는 제23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2014년에 대륙인민들의 고통과 지역의 락후성을 초래하는 모든 전쟁과 분쟁을 자체의 힘으로 종식시키고 2020년까지 대륙에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데 대해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동맹성원국들과 지역기구들의 역할과 조파성능을 정치적으로 높이고 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변혁하는 대륙을 건설하는것을 주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회의는 아프리카문제에 대해 의논하지 않고 대륙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추적인 계기로 되었다.

로씨야의 아스트라한에서 진행된 카스피해연안국가수뇌자회의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로씨야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메니스탄, 이란의 국가수반들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자연교해

피해지역들에서 구제조치가 계속 취해지고있다.

— 필리핀의 민다나오섬을 비롯한 동부와 중부의 여러 섬들에 최근 태풍이 몰아닥쳐 피해를 입었다.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지난해 12월 30일 현재 29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살림집들이 파괴되었다. 피해지역들에서 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 스리랑카에서 최근 큰물과 해가 계속 침범되고있다. 나라의 21개 지역에서 폭우에 의한 큰물로 지난해 12월 29일 현재 35명이 목숨을 잃고 110명여명의 주민들이 소거되었다. 또한 1만채의 살림집과 도둑, 하부구조들이 파괴되고 많은 목적이 류실되었고 한다. 현지에서 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의 길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

력사는 언제나 자주의 방향으로 전진하기 마련이다. 지난해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세력들이 세계도처에서 자기의 세력권을 확대하기 위해 발파하였던 력사는 자주의 한길로 변함없이 전진하여왔다.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향과 열의가 뜨겁게 일어나는 가운데 국제무대에서는 발전도상국가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데 유리한 정치경제적요소가 조성되었다.

일국제에 의한 지배와 착취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는 여러 나라들의 적극적투쟁은 세계의 다국화추진되어 새로운 국제질서수립에서 일정한 전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난해 6월 적도기네에서는 제23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2014년에 대륙인민들의 고통과 지역의 락후성을 초래하는 모든 전쟁과 분쟁을 자체의 힘으로 종식시키고 2020년까지 대륙에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데 대해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동맹성원국들과 지역기구들의 역할과 조파성능을 정치적으로 높이고 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변혁하는 대륙을 건설하는것을 주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회의는 아프리카문제에 대해 의논하지 않고 대륙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추적인 계기로 되었다.

로씨야의 아스트라한에서 진행된 카스피해연안국가수뇌자회의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로씨야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메니스탄, 이란의 국가수반들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기도 전에 로씨야를 범죄자로 몰아붙였다. 그 리면에 는 우크라이나문제를 코에 걸고 로씨야를 정치간첩들을 짓부시고 지역차의 힘으로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해당 나라들의 노략의 결과이다.

안건보장은 나라와 민족들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정책적문제이다.

지난해 국제정세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진보적력량과 그를 말살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간의 대결로 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복잡하고 첨예하였다. 우크라이나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벌여진 로씨야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간의 대립과 마찰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는 정치세력들사이의 군사적충돌로 인해 한번 조용한 날이 없었다. 서방의 희생을 면우크라이나의 비극은 서방의 간섭과 지배주의의양이 낳은 필연적산물이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위기를 잠재적적수인 로씨야를 견제입하고 고립시킬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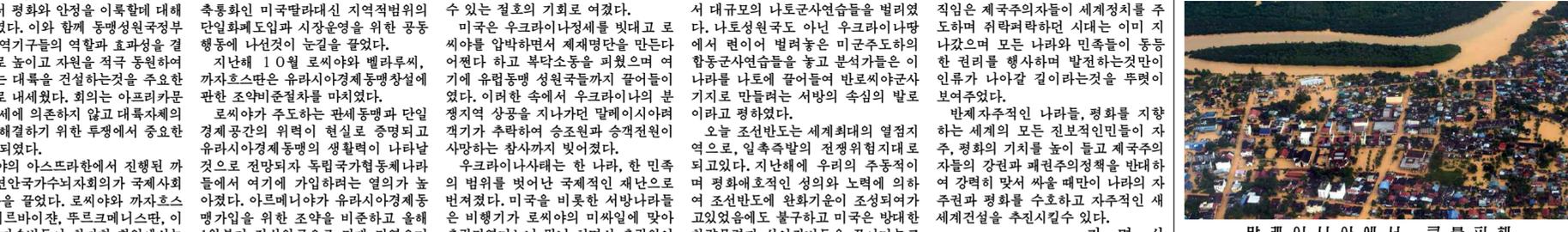
미국은 우크라이나정세를 빚고 로씨야를 압박하면서 제재책동을 만드어왔다 하고 명단속들을 피웠으며 여기에 유럽동맹 성원국들까지 끌어들이었다. 이러한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분쟁적 상황을 지나가면 탈레시이러게기가 추락하여 승조원과 승객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까지 빚어졌다.

우크라이나사태는 한 나라, 한 민족의 범위를 벗어난 국제적인 재난으로 번져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은 비행기가 로씨야의 미사일들이 맞아 추락되었다는니 뭐니 하면서 추락원인

은 불행과 재난뿐이며 리익을 볼다는 열망과 의지로 가슴부풀게 하는 절세위인의 애국의 기백을 띤 신년사를 받아안고 우리 위원회원의 전제 념일꾼들은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가다 들고있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쓰시며 크나큰 로고를 바치고계시는가.

올해의 첫 려명이 떠오르는 뜻깊은 시각에 온 민족을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를 열어나가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 애민의 뜨거운 호소는 우리 청년들의 신심을 뜨겁게 달구고있다. 70년세월에 걸치는 민족분열의 가슴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에 대한 념원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을만큼 강렬하다.

이제 더이상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져 살수 없다. 분열이 지속될수록 우리 민족이 당하는 것



말레이시아에서 큰 물 피해